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

심재훈

진(晉)은 중국 고대사에서 여느 왕조에 버금가는 유산을 남겼다. 서주 초 분봉되어 춘추시대를 주도했고, 전국칠웅 중 한(韓), 위(魏), 조(趙) 세 나라로 계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공(文公, 636-628 B.C.) 패업 이전까지 진의 역사는 문헌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이래 산시성(山西省) 서남부에서 축적된 고고학 성과를 토대로 진의 초기 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그 역사적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 진의 발전에 대한 기존 학계의 주된 인식은 북방의 비주(非周) 세력인 용적(戎狄)과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한 변경국가론이었다. 이와 달리 이 책은 서주의 2차 중심지로 성장한 진의 발전이 주(周)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강력한 영향 하에 이루어졌음을 제시한다. 주 왕실이 극상(克商) 직후 행한 진의 분봉은 용적이 아닌 잔존 친상(親商)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고, 서주시대 진의 제후묘지에서 드러난 물질문화의 양상도 서주 중심지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진은 주의 의례규범에서 이탈한 인근의 정치체와 달리 그 규범을 준수하며 주방(周邦)의 일원으로 발전했다. 서주 후기 동방의 제후국들과 왕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어도 진은 왕실의 측근으로 전쟁을 주도했으며, 서주 멸망에 뒤이은 동천기(東遷期)에는 왕실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춘추 초기 67년에 걸친 극심한 내전을 거친 곡옥(曲沃) 소종(小宗)의 승리가 진을 혁신적인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주 왕실의 종법 질서에서 벗어나 용적과도 친밀한 관계를 개시한 헌공(獻公, 688-651 B.C.) 대에 진은 문공 패업의 사실상 토대를 닦으며 지역국가로 성장했다. 전국시대에 이미 문학적 영웅담으로 자리 잡은 듯한 문공 패업의 양상 역시 최근 발견된 출토문헌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후 산시성 허우마(侯馬) 인근 진의 도읍은 1차 중심지로 변모했을 것이다. 갑골문과 금문(金文), 초간(楚簡) 등 출토문헌과 진국 통치자 묘지의 고고학자료, 전래문헌을 적절히 활용한 이 연구는 중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왕조 중심의 단선적 역사에서 벗어나 덜 주목 받았던 지역 정치체 중심의 다변화된 역사 해석을 꾀한 것이다.

심재훈(沈載勳)은 단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단국대학 사학과 교수로, 문과대 학장과 중국고중세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고대 중국의 출토 자료에 매료되어 상주사(商周史) 연구에 치중해 *Early China*와 *Toung Pao*,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Journal of Asian Studies* 등에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푸른역사, 2016)와 『청동기와 중국고대사』(사회평론, 2018),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일조각, 2018; 2019년 ICAS 우수도서상)가 있다. 역서로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세창출판사, 2011) 등이 있다. 교육부 토대연구사업 “영어, 불어, 독어권 동아시아학 주요 연구성과 DB구축”으로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한미교육위원회(Fulbright)와 일본학술진흥회(JSPS), 푸단(復旦)대학의 펠로십을 받았다.